

<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깨닫게 한 때>가 ‘그 일을 해야 할 때’ 다.
2. <지구상에 하나님의 때>가 되면, ‘복음’ 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깨우쳐 주시고,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때가 왔다고 깨우쳐 주시고,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찾고 발견해서 깨닫게 된다.
3. <때가 왔다는 것>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.
4. <주>는 ‘때’ 다. 그는 이미 ‘때’ 를 맞고, 알고 나온다. 그래서 <하나님의 때>에 정확히 시작한다.
5. 미리 시작해야 ‘그 때’ 에 정확히 시작할 수 있다. 그러지 않으면 정확히 시작할 수가 없다.
6. <완전한 시간과 때>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된다.
7. <미리 한 것>은 100% 맞다. 가령 5시에 말씀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4시 50분에 해 버리면, 그것은 100% 때를 맞춘 것이다. 미리 해야 ‘때’ 를 정확하게 맞춘다. 이같이 하나님도 <때를 맞출 때>는 미리 하신다. 고로 늘 말씀하기를, “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된다. 하나님은 더 빨리 시작하신다. 고로 <하나님의 때>에 맞춰서 해라.” 했다.

8. 하나님은 항상 ‘때에 대한 것’은 엄중하게 행하신다.
9. 성령만 쳐다보는 게 다가 아니다. 성령님은 감동시켜서 ‘때’를 가르쳐 주신다. 이는 <성령님의 책임>이다. 그러나 <자기 책임 분담>은 ‘자기’가 해야 된다.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지나가는데, 조종사가 ‘탈 사람이 있는가?’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과 같다. 준비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왔을 때 타는 것은 ‘자기 책임 분담’이다.
10. <때>에 대해 ‘자기 책임 분담’이 있다.
11. 자기가 <때>에 대해 배워서 알고, 성령님께서도 감동을 주시어 깨달았어도, 빨리 안 해진다. 왜? <때>가 왔으나, ‘때를 맞을 준비’를 안 해서다. 고로 ‘때를 맞을 준비’를 미리 해야 된다. 선생도 축구 할 때 먼저 계속 뛰는 연습을 하고, 발로 차는 연습을 한다. 그때는 성령께서 “볼이 오니, 빨리 준비해라.” 하고 감동을 주시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고서 후에 볼이 오면, 준비한 대로 그대로 볼을 찬다. 이같이 <때>를 제대로 맞으려면, 많은 시간 동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.
12. <때>가 왔어도, 충분히 준비하고 예비해야 맞을 수 있다.
13. <때>가 오면, 하나님은 선악 간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신다.
14. <때>가 되면, 자기가 행한 것들이 선악 간에 드러난다.

15. <하나님의 때>가 오면, 모든 것이 드러난다. 성경에서도 “말세가 오면 드러난다.” 했다. 그 말씀대로 <말세 때> 수십 가지, 수백 가지, 수만 가지가 드러났다. 하나님은 개인, 민족, 세계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고, 심판도 하셨다. <하나님이 하신 일들>이 너무도 많다.
16. <말세>는 ‘구약 4000년이 끝나는 때’ 다. 그리고 ‘신약 2000년이 끝나는 때’ 다. 그런데 사람들은 신약시대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른다. 오직 ‘하나님이 보낸 자’ 만 안다.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밝히시기 때문이다.
17. 하나님은 <시대의 때>에 정확히 맞춰 땅에 ‘하나님의 사람’을 보내셨다. 그리고 ‘하나님의 사람들’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하니, 그들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역사를 끌고 가셨다.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고, 다른 사람은 자기 애인이 아니니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. 고로 <예수님>도 ‘구약의 종들’은 자녀 주관권이 아니니, ‘따르는 자들, 신약의 자녀 주관권에 있는 자들’에게만 가르쳐 주고 가셨다. 그리고 <성약 때>도 ‘신약의 자녀권에 속한 자들’은 ‘신부’가 아니니 ‘성약 주관권에 속한 시대 신부들’에게만 말씀해 주고 간다.
18. <2000년>은 ‘메시아가 온다는 해’ 였다. 고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, 이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. 그것이 아니다. <메시아>는 그 전에 미리 나타나서 인(人)구름을 만든다. 성경

에 ‘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을 지낸다.’ 고 한 예언대로,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인 회교 전당을 세운 688년부터 하루를 확대하여 계산한 1290년이 지난 때, ‘1978년도’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난다. 그때부터 시대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면서 인구름을 만드는 것이다. <메시아>는 ‘하나님이 예정한 때’에 정확하게 나타난다.

19. <메시아>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를 따르게 된다. 그런데 유대인들은 ‘예수님이 전하는 말씀’을 안 들었다. 그러니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. 하나님이 오시기를 천 년, 만 년을 기다려도 그들의 생각대로는 안 오신다. 하나님은 ‘땅의 한 사람’을 쓰고 오신다. <모세 때>는 ‘모세’가 오고, <아브라함 때>는 ‘아브라함’이 왔다. 이같이 <메시아>도 ‘땅’에서 온다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영체’ 이시니 땅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.
20.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자들을 사랑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고, 성령님도 감동으로 깨우쳐 주시지만, <본인>이 ‘자기 책임 분담’을 하면서 깨닫고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. <자기 책임>을 못 하면 끝난다.
21. <역사>는 ‘때’가 되면 하되, 하나님은 ‘그 시대 하나님의 주권권에 속한 자들’에게 말씀하시고, 그들을 끌고 역사해 가신다.

22. 하나님은 <메시아에 해당되는 것>도 그에게만 가르쳐 주신다. 다른 사람은 모른다.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, “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, 그 말에 치우치지 말아라. 그들에게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. 네게만 가르쳐 준다. 그러니 너만 뜻을 펴고 가면 된다.” 하셨다. 그때 선생이 하나님께 묻기를,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‘한 사람’ 가지고 되느냐고 하니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, “아침에는 아침 한 끼만 먹으면 되지, 두 끼를 먹느냐? 이같이 <한 사람> 가지고 하면 된다.” 하셨다. <때>가 되면서 조금씩 비가 오다가 그것이 물줄기가 되고, 오랜 세월이 지나니 ‘댐’ 이 되듯이, 이같이 <하나님의 섭리역사>도 그러하다. <하나>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‘역사의 큰 댐’ 이 되었고, ‘하나님의 인구류의 역사’ 가 되었다.
23. <때>가 되면 하나님은 선악 간의 숨은 것들을 드러내신다. <사람>은 못 드러낸다. <메시아>도 사람이니 못 드러낸다.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, 드러내실 때는 ‘메시아’ 를 통해 드러내신다.
24. <하나님의 때와 법칙의 세계>는 엄격하다. 고로 <때>가 되면, ‘자기가 행한 것들’ 도, ‘시대가 한 일’ 도 선악 간에 드러난다.
25. <때>가 되면, 만물들도 드러난다. 고로 <독수리>도 때를 알고 월명동 청기와집 공중을 가물가물 날아다닌다. 지금은 <독수리가 떠날 때>가 아니고 ‘머물러 있어야 될 때’ 이기 때문이다.

26. <때>는 ‘밝히는 일’ 을 한다. <요셉>도 ‘자기 때’ 가 오니, 당세에 자기를 음모한 자들이 다 밝혀졌다.
27. 매일 자기 때를 맞추기 위해 준비하며 살기다. 매일 때를 맞추고 행하기다.
28. <때>가 되면 아름다워진다.
29. <때>를 기다려라. 기다리면, <때>는 ‘하루의 해’ 가 떠오르듯이 분명히 온다.
30. <때>는 ‘태양같이 밝히는 때’ 도 오지만, ‘흑암의 별’ 같이 될 때도 온다.
31. <자기 때>를 기다려라. 한번은 선생이 <기다리는 차>가 안 오기에 “할 수 없다. 그냥 걸어가자.” 하고 걸어가는데, 산을 넘어가다 보니 산 아래에 ‘기다리던 차’ 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. 막차인데 안 오니 기다리다가 결국 100리 길을 걸어갔는데, 나중에 ‘기다리던 차’ 가 온 것이었다. 이와 같은 날이 오니, <때>를 기다리라는 것이다.
32. <하나님의 때>가 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. 드러낼 것은 드러내 주시고, 처리도 해 주신다.
33. 계절같이 ‘때’ 가 온다.

34. <개인의 때>는 저마다 다른 것이다. <책임 분담>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.
35. 하나님의 때, 시대의 때는 ‘같이’ 온다. <하나님의 때>는 계절이 오듯이 ‘신약의 때, 성약의 때’가 동일하게 오지만, <개인의 때>는 저마다 ‘복음을 받는 때’가 다르고, ‘행하는 것’도 다르고, ‘책임 분담’을 하는 것도 다르니, 다르게 온다.
36. <때>에 대해 배우기만 하지 말고, <때>를 잡고, 다스리고, 주관하여라. <때>를 지켜라. 마치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한참 앉아 있다가 그냥 찬물만 끼얹고 나오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. 반드시 때를 썩 밀고 깨끗이 하고 나오듯이, <때>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내지 말고 ‘때’를 잡고 주관하고, ‘때’를 타고 달려야 된다.

◎ 기도하겠습니다.